

40여 곳 박빙 경합... 여야, 수도권서 끝장 승부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대전 노은역광장에서 대선 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앞에서 조재희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48·경기 60·인천 14석...지역구 254석 중 절반 몰려 국힘 “거야 심판”·민주 “정권 심판”...중도층 표심 잡기 사활

개혁신당, 젊은 세대 투표 독려 조국혁신당 “정권심판” 지지 호소

4·10 총선 막바지에, 여야 모두 수도권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48석과 경기 60석, 인천 14석 등 전국 지역구 의석 254석 중 절반에 가까운 122석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에 여야는 화력을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충청권을 방문에 이어 8~9일은 수도권 접전지를 순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부산·울산·경남·대구를 방문한 데 이어 '경부선 상행선' 유세다.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접전지가 다수 분포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층을 흡수하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민주당이 주장해 온 '정권 심판론'에 맞서 내건 '거야(巨野) 심판론'을 계속 밀고 갈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의 '막말 논란'과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불법 대출

논란'을 고리로 '막말·사기꾼 범죄자' 비호 프레임에 전면에 내세울 전망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은 잘못된 공천에 대한 지적에 반응하지 않는 정당이라는 점을 계속 부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거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기존 흐름을 바꿀 결정적 변수가 많지 않지만,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수도권을 훑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남은 기간도 모두 수도권에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영남을 비롯한 지방의 접전지는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커버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후보들을 지원한다.

선거일까지 주된 메시지는 역시나 '정권 심판론'이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과 875원"으로 상징되는, 민생에 대한 현 정권의 몰이해가 이번 선거의 '메가 이슈'라며 "민생 실정의 책임을 묻는 메시지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 정부를 '의붓아버지'나 '계모'에 빗대며 자극적으로 비판했던 기초에서 벗어나 순화된 표현으로 당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이 최근 보수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둔 듯 김 후보와 양 후보를 향해 '쓰레기'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게 역효과를 낸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담백하게 메시지의 톤을 조절하겠다는 의도다.

양당이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층 잡기 전략에 나선 것은 지난 5~6일 치러진 사전투표 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신뢰도를 이유로 사전투표에 소극적이었던 보수 진영도 적극적으로 투표한 만큼 부동층 흡수를 관건으로 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전투표에 부정적이던 영남에서도 '사전투표 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가장 큰 흐름이 '정권심판론'임을 확인했다고 보고 중도층을 포함한 최대한 많은 유권자를 투표소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성난 민심이 확인됐다"며 "사전투표를 못한 분들은 본 투표일에 꼭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했다.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구 후보를 공천한 개혁신당도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화력을 수도권에 쏟아붓는다.

지지 기반인 젊은 세대의 투표를 독려하고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날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남은 기간 부산·경남 등과 수도권을 돌며 '정권심판론'으로 막판까지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힘 “110~130석 확보” 민주 “120~151석+α”

여야, 자체 의석 전망

4·10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7일 여야가 내놓은 판세는 여전히 예측불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254개 지역구 중 각각 55곳, 50곳에서 '경합'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 판세를 가르는 수도권·중원과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낙동강벨트' 등 곳곳이 초접전 양상을 보인다는 게 양당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날 현재 각 당의 선거전략 단위 및 시도당별 자체 판세분석, 최신 여론조사 추이 등을 종합하면 여당이 국민의힘은 정당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의석과 경합 지역의 선전 여하에 따라 '110~130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은 '이종섭 논란' 등 각종 약재가 일단락되면서 수도권 접전지를 중심으로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탔다고 보고 있다. 승패는 막판 지지층 결집 여하에 달렸다는 게 당 선대위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공식적으로 광주·전남 18석 절대 우세를 기반으로 '지역구 110석 우세'라는 판세 전망을 고수하고 있지만, 비례 의석과 경합 지 성적을 더할 경우 '120~151석+α'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병도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앞서 '박빙 지역이 워낙 많고 연령대별 투표율, 막판 보수 결집을 감안하면 예측이 어려워나 과반 달성을 목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히 한강·낙동강 벨트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류다.

비례 의석수 전망치의 경우 국민의힘은 17~20석을, 민주당은 10석 안팎을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리수도 될 수 있다는 위기론도 제기된다.

서울·인천·경기 전체 122곳 중 국민의힘은 26곳을 '경합'으로 분류했다. 민주당 시도당이 파악한 경합 지역은 40곳이다.

서울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은 15곳, 민주당은 12곳 정도가 해당한다. 용산, 영등포를, 동작을, 중·성동을, 강동갑 등 '한강벨트'로 묶이는 지역구가 상당수다. 여기에는 용산처럼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엇갈리는 곳도 있고, 민주당 현역을 상대로 국민의힘 후보가 맹추격세를 보이는 영등포를 같은 곳도 있는 등 혼전의 양상도 다양하다.

가장 많은 의석(60개)이 걸린 경기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에 변동이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은 단 한 곳도 우세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2곳(동두천·양주·연천을, 여주·양평)을 경합 우세로, 7곳(성남 분당갑, 분당을, 이천, 안성, 평택갑, 평택을, 포천·가평)을 경합으로 판단했다.

다만 과거 보수정당 성적표가 좋았던 용인갑, 용인병과 '신인 대결' 구도가 펼쳐진 오산 등에서 반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33곳을 우세로, 27곳을 경합으로 각각 판단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함평 나비 대축제

제 26회 HAMPYEONG BUTTERFLY FESTIVAL

2024. 4. 26. (금) - 5. 6. (일)
함평엑스포공원 일원

주최 | 함평군 주관 | 함평축제관광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전남남도 전라남도교육청 한국관광공사 EXC 한국도로공사 KORAIL 한국농촌학회 (사)한국응용곤충학회